



원지 / *Polygala tenuifolia* Willd.

구분	설명
생물분류	식물
속국명	원지속
과국명	원지과

<p>과명</p>	<p>Polygalaceae</p>
<p>일반특징</p>	<p> 요약설명 : 원지과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에서 자란다. 중국에서도 볼 수 있다. 분포지역 : 중국 / 한국(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 형태 : 여러해살이풀 크기 : 높이 30cm 정도이다. 꽃색 : 자주색 개화기 : 7월,8월 잎은 어긋나고 선모양이다. 잎자루가 없고 둥근 모양이다.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고 끝이 뾰족하다. 총상꽃차례는 줄기와 기 끝에 발달하고 꽃이 드문드문 달린다. 꽃은 7~8월에 자주색으로 피고, 꽃자루는 털이 없다. 꽃받침조각은 5개이다. 그중 뒤의 것 1개와 밑의 것 2개는 선 모양이며 초록색이다. 양쪽 2개는 꽃잎같이 생겼고 얇은 막처럼 되어 있다. 꽃잎은 윗부분이 벌어지고 밑부분은 하나로 합쳐져 있다. 끝이 솔처럼 갈라진다. 열매는 삭과이고 평평하며 2개로 갈라지고 털이 없다. 씨앗에 털이 많다. 뿌리 끝에서 가느다란 줄기가 여러 개로 나고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뿌리는 굵고 길며 모서리진 부분이 있다. 윗부분에 있는 약간 꼬부라진 털을 제외하고는 털이 거의 없다. 뿌리를 약으로 쓸 때에는 원지()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은 식물로서 전국 각지에서 재배된다. 겉흙이 깊고 식물이 썩어 만들어진 유기물이 많은 땅, 진흙 땅이 좋다. 씨앗으로 번식시킨다. </p>